필자가 금성사(현재 LG전자) 부산공장에서 원가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방전지에서 ERP 시스템 접목과 더불어 CIO가 되기까지 전산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IT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될 만한 말이 무엇이 좋을까 고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두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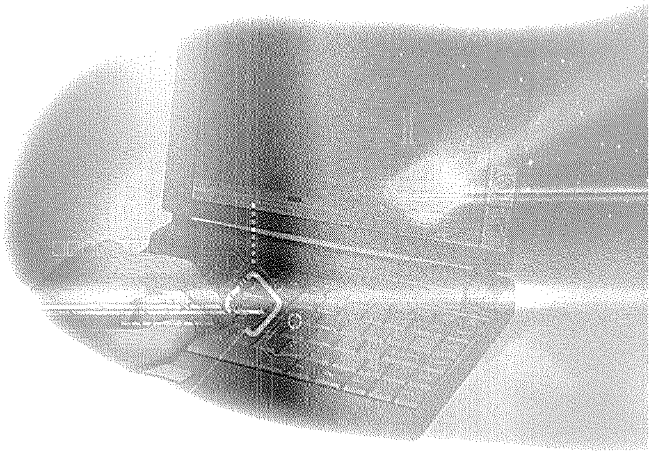
서비스 정신과 멀티태스킹 능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때

글 | 마대영 세방전지(주) 전략기획본부장(CIO · 상무) dyma@gbattery.com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행사위원회 부회장

"프로그래머는 전문기술직이 아니라 전산실이라는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되어야 한다."

1970년대 초기,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몇몇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감히 중소기업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고가의 장비가격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직종이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PC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는 급속히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다. 특수전문직이었던 전산 프로그래머의 위상이 보편화되면서 초기 개발 시에 프로그래머가 안된다는 말은 권위있게 작용하던 것이, 점차 현업의 지식과 요구 사항이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그 위상이 타협점을 찾아 낮추고 맞춰가야 했던 기억이 난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점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업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해 주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성공비결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과 로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일지라도 현업에서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래머의 능력은 개발된 프로그램 내부에 응용된 고난도의 기술력으로 평가되기보다, 오히려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얼마만큼 쉽고 유용하게 많이 사용해 주느냐 하는 것이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산직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CIO를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전산조직이 방대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다지 CIO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 전산을 총괄하는 직책에 구태여 임원까지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하고자 한다면, 전산이라는 한 가지 업무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영업, 생산, 회계, 구매 등 모든 업무를 습득하는 부단한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특히 기회가 주어질 때 과감하게 변신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춰, 어떠한 직무와 직책도 맡을 수 있는 전천후 직장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The Users